

조선왕조 초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마자파힛 왕국 간 접촉

조흥국*

- I. 서론
- II. 자와 섬 진언상의 1394년과 1406년 조선 방문
- III. 진언상의 조선 방문 목적과 그의 신분
- IV. 자와 섬과의 교류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태도
- V. '문화 접촉' 으로 끝난 한국과 자와 섬의 교류

14세기는 중국, 일본,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특히 무역사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하나의 분수령적인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4세기 말-15세기 초 사이 인도네시아 자와의 마자파힛 왕국에서 한국의 조선으로 무역 상인의 방문이 있었다. 자와 섬의 한 화상(華商)인 것으로 보이는 진언상(陳彦祥)과 그의 손자 실숭(實崇)의 조선 방문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만 나타난다. 조선과 마자파힛 왕국 간 접촉은 1412년에 종식되었다. 이 연구는 14세기 말-15세기 초 시기 자와 섬의 고대 왕국의 동아시아 무역 활동과 특히 자와 섬에서 활동하는 중국 상인들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대에서의 무역 활동의 일면에 대한 관찰을 제공할 것이다.

두 나라 간 접촉이 중단된 것에는 무엇보다도 그 시기 해외무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소극적 내지 폐쇄적 자세와 왜구의 위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우르스 비테를리(Urs Bitterli)의 문화적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볼 때, 두 지역 간 지속적인 '문화 관계'를 가능케 할 '중개자'인 화상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전근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무역 관계의 이해에 있어서 14세기는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4세기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역사 특히 무역사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하나의 분수령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1368년 명(明) 왕조가 건립되어 조공 관계에 입각한 대외 무역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1336년 시작된 무로마치(室町) 막부 시대 초기 큰 경제적 성장이 이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무역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행해졌다. 태국에서는 1351년 아유타야(Ayutthaya) 왕국이 흥기하여 역시 활발히 해외 무역을 전개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와(Java)에서는 1292년 마자파히트(Majapahit) 왕국이 건립된 후, 1330년대부터 말레이 반도, 보르네오, 말루쿠(Maluku) 제도 등 도서 동남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해양 제국으로 발전하여 활발한 해외 무역 활동을 벌였다.

이 글은 조선왕조 초기인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사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교류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 시기 자와 섬의 인도네시아 고대 왕국의 동아시아 무역 활동과 특히 자와 섬에서 활동하는 중국 상인들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대에서의 무역 활동의 일면에 대한 관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이 시기 해외 무역에 대한 한국의 자세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할 것이며 한국과 자와 섬의 교류가 15세기 초 이후 계속 발전하지

못한 데 있어서 왜구의 위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14세기 말-15세기 초 한국과 인도네시아 자와 섬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일본 및 한국과 서양 학자들에 의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태조실록(太祖實錄)』과 『태종실록(太宗實錄)』 등 한국 사료를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료는 필자가 그동안 조사한 바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들은 그러나 관련 한국 사료의 기록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이현종 1964, 263-267; 和田久徳 1986, 34-37), 사료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우봉 2004, 89-92). 이들은 또한 그 교류를 일본과 자와 섬 간 관계의 주변부에서 다루거나(Kobata and Mitsugu 1969, 149-150), 중국과 자와 섬 간 무역 관계의 일환으로 언급하거나(Reid 1992, 186-188), 한국과 태국 간 관계의 주변부에서 고찰하고 있을 뿐이다(Cho Hung-Guk 2006, 21-22).

14세기 말-15세기 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류는 14세기 말 한국과 태국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접촉에 이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접촉의 당사자인 자와 섬의 인도네시아 왕국이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과는 엄연히 다른 역사적 주체라는 점에서, 조선 왕조 시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류는 그 자체로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류는 무엇보다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무역에 대한 자와 섬의 고대 왕국의 관심과 특히 자와 섬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화상들의 상업적 이해관계라는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종종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자와 섬의 역사는 마자파힛 왕국의 역사뿐인 것으로 소개한다(SarDesai 1997, 56-57). 그러나 마자파힛은 동부 자와 섬에

그 세력 기반을 둔 왕국이었으며, 중부와 서부 자와 섬에는 14세기 전반 서부 자와 섬에 건설된 순다(Sunda) 족의 파자자란(Pajajaran) 왕국처럼 때로는 마자파힛 왕국의 행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왕국들이 있었다(Kubitscheck and Wessel 1981, 28). 14세기 후반 라자사나가라(Rajasanagara) 왕의 재위 기간(1350-1389)에 마자파힛의 세력이 팽창하여 주변의 왕국들이 대부분 마자파힛 왕국의 속국이 되었으며(Cœdès 1964, 430-431), 마자파힛의 권위는 심지어 수마트라 섬의 팔렘방(Palembang)과 파사이(Pasai) 지역까지도 미쳤다(Schrieke 1955, 27; Shaffer 1996, 90). 하지만 마자파힛의 지배력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15세기가 되면 마자파힛의 권위는 자와 섬 해안 지방의 새로운 무역 세력들로부터 도전을 받아 점차 약화되었다(Hall 1985, 246).

자와 섬에 14세기 말-15세기 초 사이에 이처럼 여러 왕국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시기 한국의 조선과 접촉한 나라는 마자파힛 왕국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다른 왕국들의 해외 무역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이 시기 자와 섬에서 가장 활발한 해외 무역 활동을 벌인 왕국은 마자파힛이었기 때문이다. 15세기 초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공진(鞏珍 1982, 4-5)도 그의 여행기에서 자와 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판(杜板) 즉 투반(Tuban), 신촌(新村) 즉 그레식(Gresik), 소로마익(蘇魯馬益) 즉 수라바야(Surabaya), 만자백리(滿者伯夷) 즉 마자파힛(Majapahit) 등 이 섬의 동부 지역 즉 마자파힛 왕국의 영역에 속한 도시들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다. 이들 도시들 중 마자파힛은 내륙에 위치해 있었으며, 나머지 도시들은 항구였다. 슈리케(Schrieke 1955, 25-26)에 의하면, 15세기 초 마자파힛 왕국의 주요 항구로 위에서 언급한 세 도시 외에 즈파라(Jepara)가 있었다.

마자파힛 왕국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와 섬의 여러 고고학적 유적에서 시대적으로 마자파힛 왕국의 시기와 일치하는 많은 중국 도자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마자파힛과 중국간의 무역에 대한 증거가 된다(Hall 1985, 243). 공진(鞏珍 1982, 10)의 관찰에 따르면, 마자파힛 왕국의 사람들은 중국산 도자기와 비단을 좋아했으며 “끊임없이 토산물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다.” 마자파힛의 국왕들은 국가의 수익사업으로 해외 무역을 중시했으며, 많은 상인들이 왕실 무역을 위해 활동했다(Hall 1985, 245).

이 글에서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서양의 제 언어들과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한자(漢字)의 경우, 지명(地名)은 그것이 중국의 지명이면 중국어 발음에 따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지명이 한자 음역(音譯)일 경우 한글 음독(音讀)에 따른다. 그것은 캄보디아 땅에 있었던 고대 왕국인 ‘扶南’의 경우, 이 왕국에 대한 고대 크메르어 명칭이 ‘브남(bnam)’이고, 또 중국 당(唐) 나라 시대 ‘扶南’의 중국어 발음이 ‘뷰남’이었던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Cœdès 1964, 74), 한글 음독이 그 지명의 원래 발음에 보다 가까운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인명(人名)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에 준하여 1911년 신해혁명 전의 것은 한글 음독에 따르고, 그 이후의 것은 중국어 발음에 따른다. 중국의 국가 및 왕조 명칭이나 중국의 문헌 자료 제목 등의 한글 표기는 한글 음독에 따른다.

II. 자와 섬 진언상의 1394년과 1406년 조선 방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태조실록(太祖實錄)』의 태조 3년 즉 1394년 음력 8월 7일의 기록에 다음의 같은 짧은 문구가 있다.

섬라국(暹羅斛)의 장사도(張思道)를 예빈경(禮賓卿)의 관직에, 진언상(陳彦祥)을 서운부정(書雲副正)의 관직에 임명했다(朝鮮王朝實錄 1979, I, 68).

‘서운부정’은 당시 천문(天文) 및 책력(冊曆) 연구와 풍수지리 등을 담당했던 관청인 서운관(書雲觀)의 한 관직 칭호였다(김상기 1985, 715, 885). 진언상과 함께 조선 조정의 예빈경이라는 관직에 임명된 장사도는 『태조실록』의 태조 2년 음력 6월 16일의 다음 기록에 의하면 1393년에 섬라국 즉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의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한 자였다.

섬라국 왕국은 그 신하인 나이 장사도(乃張思道) 등 20명을 보내와 소목(蘇木) 1천 근과 속향(束香) 1천 근 그리고 토인(土人) 2명을 바쳤다. 왕은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궁궐 문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다(朝鮮王朝實錄 1979, I, 45).

『태조실록』의 1394년 음력 7월 5일의 기록에 의하면, 장사도는 1393년 말에 조선을 떠났다가 일본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아 모든 예물과 행장(行裝)을 약탈당했으며(朝鮮王朝實錄 1979, I, 65-66), 그 후 일본에 머물러 있다가 1394년 여름에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 조정으로부터 예빈경의 관직을 받았다. 장사도의 1393년 조선 방

문에 관한 『태조실록』의 기록에는 진언상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진언상은 장사도가 1393년 말에서 1394년 중엽 사이에 일본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를 만났고 그가 1394년 여름에 다시 조선에 갈 때 그를 동행하여 함께 조선 땅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몇몇 역사학자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진언상이라는 인물을 태국의 장사도가 1393년에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와 함께 온 아유타야 왕국의 부사신(副使臣)이라고 간주한다(Kobata and Mitsugu 1969, 149; 和田久徳 1986, 31; 하우봉 2004, 90-91 각주 18, 19). 그러한 판단은 진언상을 시암 왕국에서 온 장사도에 바로 이어 부가적인 설명 없이 소개하는 위의 『태조실록(太祖實錄)』의 태조 3년 기록과 아래에 인용된 『태종실록(太宗實錄)』의 태종 6년 즉 1406년 음력 8월 11일의 기록 중 그가 1394년에 “사신으로 와서 (조정)에 선물을 바쳤다”는 대목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위 기록의 두 부분 어디에서도 그가 “섬라국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다고 말하는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는 아래의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오늘날 인도네시아에 속하는자와 섬의 옛 왕국으로부터 온 사람이었다.

남방의 야만국인 조와국(爪哇國)의 사신 진언상이 전라도의 군산도(群山島)에 이르러 왜구에게 약탈당했다. 배안에 있던 타조, 공작, 앵무, 잉꼬(鸚哥), 침향(沈香), 용뇌(龍腦), 후추, 소목, 향 등 제반 약재와 토산(土産) 피륙이 모두 겁탈당했다. 붙잡힌 자가 60명이고 싸우다 죽은 자가 21명이었다. 남녀 합하여 오직 40명만 죽음을 피하여 해안에 올라왔다. 언상은 일찍이 갑술년 즉 1394년에 사신으로 와서 (조정)에 선물을 바쳤다. 그는 우리 조정에서 종사품(從四品)의 문관직인 서운부정(書雲副正)의 벼슬을 제수했던 자이다(朝鮮王朝實錄 1979, I, 369).

위의 기록에서 ‘조와국’ 즉 자와 왕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자파히트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언상이 추측건대 진상품으로 신고 오던 물품 가운데 침향과 소목은 각각 영어로 ‘aloeswood’ (*Aquilaria agallocha*)와 ‘sappanwood’(*Caesalpinia sappan*)로 칭해지며, 이들은 각각 ‘eaglewood’와 ‘Brazil-wood’로 불리기도 한다 (Yule and Burnell 1985). 소목은 태국에 매우 흔한 나무로, 과거에 붉은 색 혹은 보라 색 염료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었다. 속향(束香)으로 불리기도 한 침향은 향나무의 일종으로 나무는 향을 제작하는데 쓰였고, 그 수지(樹脂)는 향 재료와 의약품에 사용되었다(Smith 1977, 149-150). ‘용뇌’는 영어로는 ‘보르네올(borneol)’ 그리고 국제적인 식물학명으로는 ‘*Dryobalanops aromatica*’로 불리는 약용 식물로, 각종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 이용되었다. 용뇌는 ‘보르네오 장뇌(樟腦)’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상기 기록의 ‘용뇌’가 한국의 영한(英韓) 사전에서 대부분 ‘장뇌’로 번역되는 ‘캄퍼(camphor)’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다. 전근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역에서 주요 품목 중 하나였던 캄퍼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주산지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이나 수마트라 섬이었다(Yule and Burnell 1985, 151).

『태종실록』 1406년 음력 9월 1일의 다음 기록은 조선 정부가 진언상 일행에게 베푼 친절을 보여준다.

자와 왕국의 사신인 진언상이 전라도에서 올라왔는데, 종자가 17명이었다. (왕은) 내시부(內侍府) 관리에게 그들을 서랑(西廊)에서 접대하라고 명했으며, 그들에게 각각 겨울옷 한 벌과 갓과 신을 하사했다. 감사에게 명하여 배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도 의복을 주도록 했다(朝鮮王朝實錄 1979, I, 375).

1406년 진언상의 조선 방문에 대한 이야기는 『태종실록』 1406년 음력 9월 16일의 다음 기록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자와 왕국의 진언상 등이 돌아갔다. 임금께서 그들에게 물품을 후하게 하사함으로써 그들을 보냈다. 진언상이 의정부(議政府)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영락(永樂) 4년 5월 18일에 저희의 왕이 저희들을 보내면서 토산물을 갖고 가서 특별히 조선 왕국에 진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해 5월 22일에 출발하여 해선(海船) 한 척을 타고 윤 7월 1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조선의 전라도 진포(鎭浦) 바깥의 군산도 외각에 다다랐을 때, 홀연히 일본인 배 15척을 만났습니다. 그날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르러서는 적은 수로 많은 수를 감당치 못하고, 역부족으로 모두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가 21명이요, 잡혀간 자는 남녀 모두 60명이었습니다. 현재 목숨을 부지하여 해안에 올라온 자는 진언상을 포함하여 남녀 모두 40명입니다. 진상하려던 토산물과 제가 바치려던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배에 가득 실은 화물들은 모두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옷과 양식을 하사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에서 우리가 해적 만난 일을 믿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증빙이 없으므로, 참조하기 위한 회문(回文)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영락 4년 5월 18일에 저희의 왕이 저희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토산물을 갖고 가 (전하께) 진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해 5월 22일에 출발하여 새로 건조된 2,200료(料) 크기의 해선 한 척을 타고 윤 7월 1일에 조선의 전라도 진포 바깥의 군산도 외각에 다다랐을 때, 예기치 않았던 일본 해적을 만나 전부 약탈당하고 본선(本船)만 남았을 뿐입니다. 지금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으나, 배를 탈 수부(水夫)들이 일본인들에게 태반 살해당하고 남은 자들은 잡혀가, 배를 탈 사람이 적습니다. 본선은 너무 커서 타고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양한 바다에서 소실될까봐 두렵습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

므로, 저희들이 타고 온 큰 배를 헌납하고 그 대신 40료 크기의 경쾌한 작은 배 한 척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엔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이 허락했다(朝鮮王朝實錄 1979, I, 376).

이상 살펴 본 『태조실록』과 『태종실록』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진언상이란 자는 태국의 장사도가 1393년 말에서 1394년 초 사이에 일본에서 해적에게 약탈당한 후 1394년 여름에 조선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함께 조선에 와서 조선의 조정에 “사신”의 자격으로 선물을 바쳤고 그 해 가을에 장사도가 이성계 정부로부터 예빈경의 벼슬을 받았을 때 서운부정의 벼슬을 하사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무역을 하던 화상(華商)이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와 섬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진이 쓴 『서양번국지(西洋番國志)』에 의하면, 15세기 초 자와 섬에는 주로 광둥 지방과 복건 지방에서 온 중국인들이 주민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살고 있었다(鞏珍 1982, 8). 중국인들의 자와 섬 진출은 적어도 13세기부터 확인될 수 있는 자와 섬과 중국 간 무역의 흐름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13세기 말 원(元)이 자와 섬에 대해 2만 명의 정벌 군대를 파견했을 때, 중국 병사들 중 자와 섬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자발적으로 자와 섬에 머물러 정착한 자들이 많았다. 또 14세기 중엽에 명 정부가 사무역 상인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를 조공 무역에 한정시킨 해금 정책을 실시하자, 자와 섬에서 활동하던 중국인들 가운데 귀향을 포기하고 그 섬에 눌러앉은 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마자파힛 왕국은 명의 조공 무역 정책에 부응하여 자와 섬에 정착해 활동하고 있던 화상들을 기용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조공선의 선장 및 왕실 무역 상인으로 삼기도

했다(Reid 1992, 181-186). 진언상은 마자파힛 왕국의 그러한 화상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다. 마자파힛 왕국에 정착하여 상업 및 무역에 종사하던 화상들은 인도 상인 등 다른 외국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왕국의 주요 항구들인 수라바야, 투반, 그레식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왕국 내의 생산품뿐만 아니라 외국 물품이 집결되는 부밧(Bubat)이라는 도시에서 주로 살았다. 부밧은 수도 마자파힛에 북쪽으로 인접해 있는 상업 도시였다(Kenneth 1985, 246; Shaffer 1996, 91).

1394년에 조선 정부의 후대(厚待)를 경험한 진언상은, 『태종실록』 1406년 음력 8월과 9월의 기록들에 나타나 있는 그 자신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406년 여름에 동남아시아의 진귀한 동물들을 포함한 다양하고 풍부한 화물들과 많은 사람들을 실은 큰 상선을 타고 자와 섬의 마자파힛 왕국의 사신으로 다시 조선에 갔다. 그가 타고 온 상선의 크기는 상기 기록에 “2,200료”로 제시되어 있다. 김병근(2004, 165-179)의 연구에 따르면, ‘요(料)’는 전근대 중국에서 선박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용적 단위로, 그 수치는 장(丈)¹⁾으로 표시된 선체의 넓이와 깊이와 용골(龍骨)의 길이를 모두 곱한 수에 100을 또 곱하여 얻었다.²⁾ 이를 바탕으로 2,200료의 배를 대략 용골의 길이 33m, 넓이 10m, 깊이 3m 크기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피에르이브 망갱(Manguin 1980, 268)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자와 섬의 즈파라(Jepara)에서 16세기 초에 제작된 정크는 약 1천 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었으며 오늘날 선박 용적 톤수로는 약 1,000톤의 크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200료 크기의 배는 약 220톤 크기의 배가 아니었던가

1) 1 장(丈)은 3.58m임.

2) 용적 단위로서의 1요(料)는 전근대 중국에서 1석(石) 즉 180리터에 상당했다. 1천 요 크기의 선박에 약 100명이 승선했으며, 5천 요 크기의 선박에는 약 500-600명의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羅竹風(1992, 331) 참조.

싶다.

진언상이 타고 오던 상선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해적의 습격을 받아 많은 선원들이 죽었고 조선의 조정에 바치려던 모든 선물과 조선의 시장에서 팔려던 모든 화물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선물과 화물의 일부분에 대한 한 흥미로운 정보가 『태종실록』 1406년 음력 9월 26일의 다음 기록에 나타난다. 9월 26일은 빈털터리가 된 진언상이 그의 종자 17명과 함께 9월 1일 조선의 수도 한양에 올라온 지 한 달이 채 못 된 시점이었다.

쓰시마 섬(對馬島)의 슈고(守護)³⁾인 소 사다다케(宗貞茂)가 사신을 보내 소목과 후추 등 토산물과 공작을 바쳤다. 사신은 이것들이 남양의 오랑캐(南蕃)의 배를 약탈하여 얻은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이에 사간원(司諫院)이 왕에게 아뢰기를, “진기한 새와 짐승은 나라에서 기르지 않는 것이 옛 교훈입니다. 하물며 그것은 약탈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리쳐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임금은 먼 곳에서 온 사람과의 관계를 중히 여겨 공작을 상림원(上林園)에서 기르도록 명했다(朝鮮王朝實錄 1979, I, 376).

여기서 말하는 “남양의 오랑캐의 배”는 진언상의 상선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군산 앞바다에서 진언상의 상선을 약탈한 일본 해적은 쓰시마 해협과 대한해협 그리고 서해 일대에서 해적질을 하던 쓰시마 섬의 왜구 집단이었고, 그 배후에 당시 쓰시마 섬을 지배해온 소씨(宗氏)⁴⁾ 세력이 있었던 것이 된다.

-
- 3) 슈고(守護)는 14세기 전반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성립 이래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군사·재정·행정 등 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던 자를 가리킨다. ‘슈고’에 대해서는 堀江保藏(1981, 64-66)과 伊藤喜良(1992, 236 이하) 참조.
- 4) 소씨(宗氏)는 가마쿠라(鎌倉) 시대부터 에도(江戸) 시대 말 즉 12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쓰시마(對馬)국의 영주(領主)였다. 소씨 세력은 특히 14세기 후반에 쓰시마국의 슈고(守護)가 된 이후 이 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1987, 第八卷 533) 참조.

III. 진언상의 조선 방문 목적과 그의 신분

자와 섬에서 온 진언상이란 인물과 조선 왕조 초기의 한국과의 만남에 대한 상기의 이야기에서 따져보아야 할 문제는 세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그의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가 어떤 신분으로 한국을 찾아 왔느냐 하는 점이며, 셋째는 그의 방문에 대해 조선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위에서 인용한『태종실록』 1406년 음력 8월의 기록에는 진언상이 1394년에 조선에 왔을 때 “사신으로 와서 조선 조정에 선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처음 찾아 왔을 때 과연 자와 섬의 마자파히트 왕국의 사신 신분으로 왔을까? 진언상은 1394년에 조선을 방문했을 때는, 『태조실록』의 기록에 부가적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개별적인 무역 상인으로 왔으며, 그러한 위치에서 태조 이성계 정부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태종실록』 1406년의 기록 중 진언상의 진술에는 자와 섬의 마자파히트 왕국의 조정이 조선의 국왕에게 보내는 공식적 서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서신은 진언상의 상선이 일본 해적에게 약탈당했을 때 다른 물건들과 함께 분실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만약 국서(國書) 급의 서신이 정말 존재했었다면, 진언상이 자신의 진술에서 이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진언상은 1406년에 조선을 방문했을 때도 비록 자신을 “자와 왕국”의 사신으로 소개하고 “자와 왕국”의 국왕이 조선의 조정에 보내는 진상품 등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사적인 무역 상인으로 온 것이었으며, 그의 1406년 조선 방문의 목적은 기왕에 닦아놓은 조선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본격적인 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그는 수 년 뒤 일본에 갔을 때는 마자파히 왕국의 정식 사신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태종실록』 1412년 음력 4월 21일의 다음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자와 왕국의 아례(亞列) 진언상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는데, (그 나라는) 류큐(琉球)의 별종(別種)이다. 보내온 서신에 이르기를. “엔상은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려 백 번 절을 올리며 의정부(議政府) 대인(大人) 각하께 아뢰입니다. 저는 수 년 전 일본의 해적에게 겁탈 당했으나 고맙게도 임금님께서 저에게 의복과 음식을 주시고 또 군선(軍船)을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에 (임금님께 대한) 감사와 충정의 마음(犬馬之情)이 일어나는 것을 억누르지 못하겠습니다. 일본의 내해(內海)에 이르니 배에 물이 새고 배는 풍랑으로 표류되어 노와 키⁵⁾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해안가까지 떠내려 와서 배는 즉시 침몰되었고 저희들은 생명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일본 해적에게 의복을 다 빼앗겨 매우 춥고 얼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 국왕이 감사하게도 그의 사신을 보내어 저희들을 본국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본국의) 국왕께서 곧 저를 (사신으로) 임명하여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례로 파송된 배가 풍랑으로 인해 노와 키 등을 잃어버려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해 음력 7월이 되어서야 일본의 하카다(博多)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의 관청에 머무르며 (일본의) 수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 음력 정월과 2월이 되어서야 (일본의) 수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 년 전에 귀국에서 후한 은혜를 입었던 것을 생각하면, 친히 (귀국까지) 가서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친히 나아가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의 뜻을 표하지 못하고 특별히

5) 원문에는 ‘공구(楨棋)’라고 표현되어 있다. ‘공구’가 명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공(楨)의 주 의미가 ‘막대기’라는 점을 고려하고 배가 난파하는 상황의 문맥을 참작하여, 이 글에서는 ‘공구’를 ‘노와 키’로 번역한다.

제 손자인 실숭(實崇)을 보내어 토산물을 갖고 나아가 (제) 대신 절을 올리고 성은(聖恩)에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대인께서 제 심정을 임금님께 아뢰어 주신다면 매우 머리를 조아리고 조아려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길 엿드려 뵙니다(朝鮮王朝實錄 1979, I, 632).

위의 기록 중 ‘아레’는 인도네시아어 ‘아르야(arya)’의 한자 음역(音譯)으로, 앤터니 리드(Reid 1992, 187)에 의하면 당시 자와 섬의 마자파힛 왕국에서 최고 등급의 사신에게 붙여진 칭호였다. 짐작건대 마자파힛 왕국의 왕실 무역을 위해 일하는 그는 때로는 공식적 사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진언상은 1411년에 자와 섬에서 일본으로 갔으며, 이 때 그는 ‘아르야’의 칭호를 지닌 사신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406년 가을에 자신의 큰 배를 조선 정부가 제공한 소형의 선박과 맞바꾸고, 이듬해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국을 떠난 진언상은 일본의 한 연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를 잃고 일본에 상륙했다. 그 후 그는 일본에 머물러 있다가 일본 “국왕”의 호의로 일본 정부가 마자파힛 왕국으로 파견하는 일본 사신이 탄 배에 탑승하여 자와 섬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진언상이 서신에서 말하는 일본 “국왕”은 일본의 덴노(天皇)가 아니라 당시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 1394-1423) 쇼군(將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마자파힛의 국왕들은 왕국의 통치 영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뿐 아니라 외국 산물이 수도로 수입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Shaffer 1996, 92). 일본 사신의 방문을 일본 시장의 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로 간주했을 마자파힛 왕은 진언상을 마자파힛의 사신으로 임명하여 일본으로 파송했다. 그러나 그가 탄 배는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자와 섬으로 회선해야 했다.

진언상의 이상의 행적들은 모두 1406년 겨울에서 1410년 겨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행적들이 만약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면 모두 합쳐 1년 이내에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처럼 4년이란 기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사실은 진언상이 일본이나 자와 섬 중 어느 한 군데에서 혹은 두 군데 모두에서 장기간 체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랑으로 자와 섬으로 되돌아간 그는 1411년 봄과 여름 사이에 다시 자와 섬을 출발하여 그 해 음력 7월에 하카다(博多)에 도착했다. 규슈(九州) 섬 북쪽의 후쿠오카(福岡) 현의 동쪽에 위치한 하카다는 당시 서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김병근, 2004, 309-318). 마자파히 왕국의 정식 사신으로 일본에 온 그는 쇼군을 알현하기 위해 당시 무로마치 막부의 수도인 교토(京都)로 1412년 초에 올라갔다. 그리고 상기 기록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가 손자인 실승을 조선에 보낸 것은 자신이 교토에 머물러 있던 동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자와 섬과의 교류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태도

이상 살펴 본 15세기 초 조선과 자와 섬의 마자파히 왕국 간 접촉의 성격과 관련하여, 위의 『태종실록』 1412년 음력 4월의 기록 중 진언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와 반응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무로마치 막부는 풍랑으로 배를 잃고 1406년 겨울에 일본에 상륙한 것으로 보이는 진언상 일행을 일본의 선박에 태워 자와 섬에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국 길에 일본 사신을 동행시켜 보냈다. 무로마치 막부는 또 1411년 음력 7월에 하카다 항에 도착한 진언상이 수도인 교토로 올라와 마자파히 왕국의 사신으로서

일본의 쇼군을 알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자와 섬의 마자파히 왕국과 통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로마치 막부는 제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1392년에 북조(北朝)와 남조(南朝)를 통일한 후 중국 명(明)과의 국교를 회복하고 중국에 대한 조공 무역을 개시하는 등 해외 무역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東京大教養學部日本史研究室 1994, 150-157). 그리고 해외 무역에 대한 무로마치 막부의 적극적인 관심의 배후에는 14세기에 큰 변화와 발전을 본 일본 산업계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었다(堀江保藏 1981, 72-88).

진언상에 대한 조치와 마자파히 왕국과의 교류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이처럼 적극적인 일본 정부에 비해, 조선의 태종 정부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분석한 『태종실록』 1406년 음력 9월의 기록과 1412년 음력 4월의 기록에는 진언상이 1406년 가을에 한국을 떠날 때 조선 정부가 “자와 왕국의 사신”의 조선 방문에 대한 답례로 조선의 사신을 진언상 일행과 함께 자와섬으로 파견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선 정부는 1406년에 마자파히 왕국으로 회례사(回禮使)를 보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자파히 왕국과의 교류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위에서 인용한 『태종실록』 1412년 음력 4월 21일의 기록 중 “자와 왕국”은 “류큐의 별종이다”라고 한, 즉 마자파히 왕국을 일본 열도의 류큐 왕국과 비슷한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태종 정부는 마자파히 왕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정부는 태조 시대 태국의 “사신” 장사도의 방문에 대한 답

례로 1393년 말에서 1394년 초 사이에 배후(裴厚)란 자를 사신으로 삼아 장사도와 함께 아유타야 왕국으로 보냈지만, 일본에 도착한 그들이 해적의 습격으로 모든 선물과 화물이 소실되어, 태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려던 한국의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朝鮮王朝實錄 1979, I, 65). 조선 조정은 조선으로 돌아온 장사도와 함께 1394년 말에서 1395년 초 사이에 조선의 사신을 다시 아유타야로 파견했으나, 1396년 중엽에야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온 통역관 이자영(李子瑛)은 사절단의 활동에 대한 아무런 보고를 남기지 않았다(朝鮮王朝實錄 1979, I, 94). 이것은 조선의 사절단이 아유타야 왕국의 국왕을 알현한 것은 고사하고 태국 자체를 과연 방문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태조 시대 태국으로 회례사를 파견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외교 내지는 통상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던 이 경험이 태종 정부로 하여금 자와 섬으로의 사신 파견을 꺼리도록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당시 해외 무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해외 무역 활동은 고려 시대 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무역 정책에 힘입어 특히 한국과 중국 간 서해 항로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던 것이 고려 말기에 이르러 고려 정부가 한반도 서남해 지역의 해상 세력을 이들이 원(元)의 지배에 저항한 삼별초(三別抄) 세력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섬에 주민이 살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공도(空島) 조치를 시작한 이후, 한국인들의 해상 무역 활동이 쇠퇴하게 되었다. 이윽고 조선 왕조에 들어서서 조선 정부는 고려의 공도 정책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명의 해금(海禁) 정책도 답습하여 민간인들의 해상 활동을 불법화했다(강봉룡 2004, 28-31).

조선 정부의 해상 활동 및 해상 무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자세의 저변에는 왕조의 출범 이후 조정이 추구한 상업 억제 정책

이 또한 깔려 있었다. 왕조 건설을 주도한 개혁파 사대부들은 ‘농업이 본업(本業)이고 상공업은 말업(末業)’이라는 인식에서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은 억제해야 한다는 이른 바 무본억말(務本抑末)의 경제 이념에 매여 있었다. 이러한 경제 이념은 “생재어본무(生財於本務)” 즉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본업인 농업에 힘쓰는 것에 놓여 있다’고 본 주자(朱子)의 성리학(性理學)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조선 왕조 시대 특히 해외 무역은 국가와 사대부 계층의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국가의 강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졌다(백승철 2004, 186-196). 이와 더불어 조선 왕조 초기까지 한반도의 연안까지 출몰하던 왜구의 위협은 조선 정부가 해외 무역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태종실록』 1412년 음력 5월 10일의 기록에 조선 조정이 “자와 왕국의 사람들이 파는 비포(秘布)⁶⁾ 10필을 샀다”는 짧은 글이 발견된다(朝鮮王朝實錄 1979, I, 634). 조선의 태종 정부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자와 섬에서 온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자와 섬의 한 남만(南蠻) 왕국과의 상업적 교류에 대해서는 이처럼 그들이 갖고 온 물품을 소량 구입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V. ‘문화 접촉’ 으로 끝난 한국과 자와 섬의 교류

1412년 음력 4월에 조선에 온 진언상의 손자 실승과 그 일행은

6) 최남선(崔南善)의 『고사통(故事通)』에 따르면, 비포(秘布)는 인도 서남부의 코로만델(Coromandel) 해안을 끼고 있었던 출라(Chola) 왕국에서 생산된 면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종(1964, 272 각주 29) 참조.

『태종실록』 1412년 음력 5월 25일의 다음 기록에 따르면 다음 달 말에 조선을 떠났다.

일본의 우쿠(宇久)씨⁷⁾의 사신과 자와 왕국의 진언상의 사자 등이 돌아간다고 알렸다. 자와 왕국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성품이 본래 탐욕스럽고 진언상의 재물을 많이 도둑질했습니다. 그들이 도중에 우리들을 죽이고 그 행적을 없앨까 두렵습니다. 나라에서 저희들을 호송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의정부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병선을 한 두 척 보내는 것으로 어찌 (일본 사람들의) 난폭함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병선을) 많이 보낼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여, 그대로 했다(朝鮮王朝實錄 1979, I, 636).

조선 정부가 자와 섬에서 온 손님들의 호송 요청을 거절하면서 제시한 상기 기록의 이유에서 당시 조선 정부가 왜구의 위협성에 대해 지니고 있던 인식의 한 단면이 엿보인다. 그러나 거절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아마 앞에서 고찰한 해외 무역에 대한 조선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호송 요청에 대한 조선 정부의 거절은 그것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실송 일행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더 이상 진언상은 물론, 자와 섬으로부터의 사신 내지는 손님의 조선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1412년 초여름에 진언상의 손자인 실송과 그 일행이 조선을 떠남으로써 한국과 자와 섬 사이의 교류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자와 섬의 마자파히트 왕국이 조선과의 교역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은 마자파히트 왕국의 상인들이

7) 원문의 “우쿠도노(宇久殿)”의 ‘도노(殿)’는 높은 신분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접미어로 보인다. 우쿠씨(宇久氏)는 나가사키(長崎) 맞은편에 위치한 고도(五島)열도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우쿠도(宇久島)를 기반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고도열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 및 명과 해외 무역도 활발하게 행했던 세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1980, 第二卷 55-56) 참조.

한반도로 가는 길에서 직접 경험한 왜구의 위협 외에 조선 정부의 해외 무역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스위스의 역사학자인 우르스 비테를리(Bitterli 1992, 17-54)는 두 지역 간 문화적 관계를 그 성격에 따라 세 단계 내지는 세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는 ‘문화 접촉(Kulturberührung)’이다. 이것은 대개 그 관계가 우연적이며 일회적이거나 오랜 단절 후에 다시 맺어지는 등 불규칙하게 일어난다. ‘문화 접촉’은 종종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 등으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두 지역 간 사람들 사이에 상호 호의적인 접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둘째는 ‘문화 충돌(Kulturzusammenstoß)’로, 이것은 대부분 처음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시작된 ‘문화 접촉’이 상호 이해의 결여와 이해관계의 결렬로 인해 상호 적대적인 관계와 심지어 상호 무력적인 충돌의 양상으로 비약되는 단계를 일컫는다. 셋째는 ‘문화 관계(Kulturbeziehung)’로, 이것은 두 지역 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룬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상호교환적인 접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단계를 가리킨다. 특히 교역을 바탕으로 한 ‘문화 관계’가 마찰 없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개자(Mittelsleute)’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사이 조선과 인도네시아 자와 섬의 마자파힛 왕국 간의 교류는, 문화적 관계에 대한 비테를리의 분류를 적용한다면, ‘문화 관계’의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문화 접촉’의 수준에서 끝나고 만 것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교류가 ‘문화 접촉’에서 끝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해외 무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조선과의 교역에 대한 자와 섬 상인들 특히 화상(華商) 진언상의 관심 상실이 중시되는데, 이 중 후자의 요인은 비테를리가 말하는 ‘중개자’ 역할의 결여와 관련하여 한 흥미로운 측면을 제공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태

국과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중국 사이에는 몇 백 년 동안 교역을 바탕으로 한 ‘문화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화상이나 화인 등 중국인들이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에는 조선 왕조 시대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지속적인 교역에 기여할 화상 ‘중개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중개자’ 역할은 진언상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화상에게서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나마도 앞에서 본 여러 요인들 때문에 그들을 조선의 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강봉룡. 2004. 『한국 해상세력 형성과 변천』.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김병근. 2004. 『수증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 김상기. 1985.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 백승철. 2004. “조선전기 中央集權化와 商業政策.” 오영교 편.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연세국학총서 46. 해안.
- 이현중. 1964. “南洋諸國人の 來往貿易에 대하여.” 『사학연구』 18.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79.
- 하우봉. 2004. “조선시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하우봉 외.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사의 재조명』.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Bitterli, Urs. 1992. *Alte Welt - neue Welt: Formen des europäisch-überseeischen Kulturkontaktes vom 15. bis zum 18. Jahrhundert*. München: DTV.
- Cho Hung-Guk. 2006. “Siamese-Korean Relations in the late Fourteenth Century.” *Journal of the Siam Society* 94.
- Cœdès, Georges. 1964. *Les États Hindouisés d'Indochine et d'Indonésie*. Paris: E. de Boccard.

- Hall, Kenneth R. 1985. *Maritime Trade and State Development in Early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obata, Atsushi and Matsuda Mitsugu. 1969. *Ryukyuan Relations with Korea and South Sea Countries*. Kyoto.
- Kubitscheck, Hans-Dieter and Ingrid Wessel. 1981. *Geschichte Indonesiens: Vom Altertum bis zur Gegenwart*. Berlin: Akademie-Verlag.
- Manguin, Pierre-Yves. 1980. "The Southeast Asian Ship: A Historical Approach."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2).
- Reid, Anthony. 1992. "The Rise and Fall of Sino-Javanese Shipping." V.J.H. Houben, H.M.J. Maier and W. van der Molen, eds. *Looking in Odd Mirrors: The Java Sea*. Leiden: Rijksuniversiteit te Leiden.
- SarDesai, D.R. 1997. *Southeast Asia: Past & Present*. Fourth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 Schrieke, B. 1955. *Indonesian Sociological Studies: Selected Writings, Part One*. The Hague: W. van Hoeve.
- Shaffer, Lynda Norene. 1996. *Maritime Southeast Asia to 1500*. New York and London: M.E. Sharpe.
- Smith, George Vinal. 1977. *The Dutch in Seventeenth-Century Thailand*.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Yule, Henry and A.C. Burnell. 1985. *Hobson-Jobson: A Glossary of Colloquial Anglo-Indian Words and Phrases*. London, Boston, Henley, Kitab and Madras: Routledge & Kegan Paul.
-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1980. 『國史大辭典』. 第二卷. 東京: 吉川弘文館.
-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1987. 『國史大辭典』. 第八卷. 東京: 吉川弘文館.
- 堀江保藏. 1981. 『日本經濟史』. 황명수 역. 교학연구사.
- 東京大教養學部日本史研究室 編. 1994. 『日本史概説』. 김현구, 이연숙 역. 지영사.
- 伊藤喜良. 1992. 『南北朝の動亂』. 東京: 集英社.
- 和田久徳. 1986. "十四五世紀における 東南アジア船の東アジア來航と琉球國." 『球陽論叢』 12.
- 鞏珍. 1982. 『西洋番國志』. 北京: 中華書局.
- 羅竹風 編. 1992. 『漢語大詞典』. 七卷. 香港: 三聯書店.

ABSTRACT

Contacts between Korea and Majapahit Kingdom in Indonesia in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CHO Hung-Gu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fourteenth century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y of various Northeastern and Southeaster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Korea, Thailand, and Indonesia, particularly in the history of the trade ther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is period, a certain Chen Yan Xiang, apparently a Chinese merchant, from Majapahit Kingdom in Java, Indonesia, visited Joseon Kingdom in Korea between the late fourteenth century and the early fifteenth century. His visit is recorded only in the Korean historical document Joseon Wangjo Sillok.

This paper which deals with the contact between Joseon and the kingdom of Majapahit between the late fourteenth century and the early fifteenth centur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into an aspect of the trade that the ancient kingdom in Indonesia conducted with East Asia in this period, particularly the trade in which the Chinese merchants in Java were engaged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And this study will make it possible to see a side of an attitude on the part of Korea toward foreign trade in this period, and will demonstrate that Japanese pirates' threat was significantly attributable to the failure for the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va to develop any longer after the early fifteenth century.

Key Words: Chinese Merchant, Majapahit Kingdom, China Sea Trade, Japanese Pirates